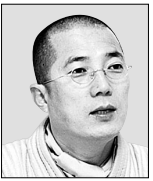


일 주 문



은해사불교대학 졸업식
은해사 주지 스님은 2월 13일 오후 2시 은해사수련관에서 '은해사불교대학 11기 졸업식'을 거행한다.



청렴한국인 대상
해봉 포항북부장애인복지관장 스님은 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렴사회 천만인 청렴서약식'에서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2차 선지식 구도순례
정은용 정법빠리사 대표도반은 1월 30~31일 용문산 상원사 용문선원에서 '2차 선지식탐방 구도순례'를 실시한다.

<이전> 출판사 올리브그린(대표 오종욱) 사무실이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9-4번지 원창빌딩 502호로 1월 18일 이전했다. (070)7574-8991

“스키로 스트레스 날렸어요!”

스카우트불교연맹, 강원도서 청소년 스키캠프



조계종 포교원 산하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송묵, 포교원장 직무대행)이 주관한 '화랑 인성함양 스키캠프'가 1월 18~20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렸다.

옥천암과 동원정사 등 수도권 9개 사찰에서 어린이·청소년 205명과 지도법사스님, 재가 지도자 28명 등 총 233명이 참가한 이번 스키캠프는 어린 불자들이 정서를 순화하고, 스키를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스키캠프 참가자들은 18일 입재식에 이어 자비명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스키와 보드 2개 종목에서 수준에 따라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강습을 실시했다. 어린이·청소년들은 캠프 이튿날부터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예불과 함께 일정을 시작, 수준별 스키 및 보드 강습과 자유시간을 즐겼다.

올해로 세 번째 스키캠프에 참가한 용주사 여정은 범우(중학교 2)는 “스키를 타면 추위는 잘 느끼지 못한다”면서 “같이 절에 다니는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스키캠프에 참가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비로자나선원 박태은 범우(고등학교 2)는 “그동안 공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렸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복지포교로 불교 한 축 이룰 터”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
초대 회장 취임한 상덕 스님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서 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선(禪)과 교(敎)가 불교를 이루듯 비구니 복지실천가들의 역할을 모아 복지포교가 불교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월 21일 출범한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이하 한비복지회) 회장에 선임된 상덕 스님(사진)은 비구니스님들이 불교교리를 사회에 널리 알릴 많은 이들이 불교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복지포교’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비복지회는 복지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 시설장들이 모여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비구니 복지실천가의 위상정립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현재 서울·강원·충청·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활동 중인 비구니 시설장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상덕 스님은 “20년 가까이 불교복지분야에서 활동하며 비구니 시설장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시설장이지만 비구니이기 때문에 일

전국서 복지활동하는 비구니 모아
회원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 주력
“불교계 직영복지시설 확대되길”

선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고충도 꾸준히 이어졌다”며 “한비복지회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면서 우리사회 복지를 선도하는 전문 비구니스님들을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상덕 스님은 2013년 말 조계종사

회복지재단 제5대 시설장협의회장에 선출돼 1년 반가량 단체를 이끈 경험이 있어 불교복지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님은 시설장협의회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비복지회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상덕 스님은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비구니 시설장단 회원으로 등록돼 규모가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직원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도 준회원 등으로 가입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힐 생각”이라며 “시설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70명의 직원들이 있다. 불교계 복지전문가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불교위상과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덕 스님은 더불어 단체 회장으로서 불교복지계에 직영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스님은 “대부분의 불교복지시설이 지자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위탁 조건에 맞춰 활동하다보니 각종 제약에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불법(佛法)을 전하기 위해서는 직영시설이 늘어나야 한다. 불교계 복지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순수한 불교복지관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로터스월드-라오스 MOU

1월 18일 협약식... “교육지원사업 펼칠 것”



불교계 국제구호NGO단체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1월 18일 라오스 씨엥쿠앙 도교육청과 MOU 체결을 맺었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체결기간인 2017년 10월까지 라오스 씨엥쿠앙 덕캄마을 외 2개 마을서 지역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친다.

박아름 기자

본동복지관, 아이들과 직업체험

1월 15일 서울 키자니아서



본동사회통합복지관(관장 김종성)은 1월 15일 서울 키자니아에서 겨울방학맞이 직업체험을 실시했다. 본동통합복지관 측은 “아이들이 평소 관심있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조직 화합·음성포교로 불교발전 도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박화자 제 6대 회장



“조직 화합을 이끌어내며 아름다운 찬불가를 통한 음성 포교에 매진할 것입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제6대 신임회장으로 박화자(59·사진) 회장이 1월 18일 취임했다. 박 회장은 수영구 라스코스 웨딩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화합’과 ‘음성포교’를 두 축으로 삼아 조직 발전을 이끌 것을 다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찰 합창단을 찾아 소통하고 모두 함께할 수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찬불가는 거룩한 부처님의 장광설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역대 회장님들이 이뤄 놓으신 음악적 완성도를 더욱 높여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한 찬불가를 통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심 수행할 수 있었던 과거를 전하며 찬불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미가입 사찰 합창단 발굴해
음악적 완성도 높일 계획
사회공헌나눔활동에도 노력

박 회장은 “처음 합창단 수업에서 경험했던 무언의 전율과 환희심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부처님전에 매달려 달려오만 했던 기도가 어리석음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박 회장은 찬불가 보급과 함께 부산불교연합회의 주 활동인 자비자눔,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조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집행부 소임자와 모든 단원 그리고 배편 중 지휘자님을 도울 것이다”며 “부산불교에서 진행하는 활동 및 봉사에 협력해 지역사회 공헌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1992년 2월 부산지역 26개 합창단을 주축으로 창립했다. 이후 부산전국불교합창제 및 부산불교연합합창단연주회를 개최하며 찬불가를 보급해오고 있다. 2002년 리바델가루다 합창제 은상, 같은 해 10월 유럽에서 열린 세계합창올림픽에서 불교대표로 참가해 동메달, 2015년 전국불교합창제 1등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부산합창마라톤, 세계여성합창제, 불교합창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하성미 기자

성북장애인복지관 ‘눈썰매 여행’

충남 아산시... 발달장애아동 21명 참석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1월 14~15일 충남 아산에서 ‘2016 겨울계절학교 1박 2일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21명이 참석했다. 1일차에는 눈썰매 타기, 중국 기예단 공연 관람 등이 진행됐으며, 2일차에는 세계 꽃 식물원을 방문해 꽃물순수건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 시간을 가졌다.

박아름 기자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 【108 선지식 구도순례】

도반 여러분!
금생에 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무량 복덕을 짓는 자량資糧입니다!
선재도사가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였듯이 국내외 선지식을 찾는
108선지식 구도순례여행에 같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격월에 한번씩 국내외 선지식과
수행처를 탐방하여 1박 2일 철야정진하는 구도순례 프로그램으로
18년동안 진행되어 2033년 12월에 회향할 예정입니다.

2차 선지식탐방 구도순례

- ◆ 일 정 : 2016년 1월 30일(토) ~ 31(일)
- ◆ 장 소 : 용문산 상원사 용문선원
- ◆ 소참법문 : 선원장 의정스님(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대표)
- ◆ 출발장소 :
  - ①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수운회관 앞
  - ② 1월 30일 오후 3시 3호선 양재역 11번출구 주차빌딩 앞
- ◆ 108 선지식 구도순례 및 기도법회 동참문의 :
  - 대 표 도 반 덕상 정은용 010-6894-2007
  -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 010-5217-2878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正見과 혜안慧眼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수행과 자비행이 여일一如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을 더 내고자 기획한 수행 프로그램이다.
- 구도순례에는 국내외 출세가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장인으로써 수행과 예술을 겸비한 분들까지 망라하여 탐방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으로 11월 21일(토) 조계종 학림사 오동선원(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을 찾아 철야정진을 하고, 조실인 학산 대원스님으로부터 소참법문을 들었다!
- 「정법빠리사-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는 그동안 지방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신심을 고취해 왔던 재가자들이 모여 수행과 교육, 자비나눔 활동을 펴고자 2015년(불기 2559년) 10월 18일(일) 보광정사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결성된 바 있으며, 지계를 바탕으로 수행이 뛰어난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 국내외 자비나눔 활동, 정법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보광정사(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7층)에서 108배 참회, 아비라 기도, 참선, 능엄경 등 경전 공부와 기도법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법회에는 다양한 주제로 법사를 모시고 일요 기도정진법회를 진행.
- 2개월에 한번씩 수행기운이 좋은 수행도량을 찾아 무박 2일 철야정진 진행.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 대 표 도 반 덕상 정은용 두손모음